

노동시장 둔화

3월 일자리수 2년 만에 최저



▲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 사진=shutterstock

미국의 3월 일자리 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전날 3월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59만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77만5,000개)를 밑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일자리 수는 160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11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시장의 일자리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선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의료와 사회 지원 부문에서도 4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노동 시장 신뢰도의 척도로 간주되는 이직률은 지난 2월 2.6%에서 3월 2.5%로 감소했다. 이는 이직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말과 2022년 초의 2.9~3.0% 범위보다는 낮은 수치다.

노동 시장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이클 페틀리 뉴욕 JPMorga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인과 이직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고율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 가지 수치는 노동 시장이 식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펜타닐 급속 확산 ... 과다복용 사망 5년새 4배

미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숨진 사람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전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를 인용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따른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16년 5.7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불과 5년 만에 이 마약으로 인한 10만명당 사망률이 3.8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인종별로는 미국 원주민의 펜타닐 과용으로 인한 10만명당 사망률이 2021년 기준 33.1명으로 백인의 1.3배에 이르렀고, 아프리카계의 사망률도 10만명당 31.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5~31세(10만명당 40.8명)와 35~44세(10만명당 43.5명) 등 젊은 인구집단에서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펜타닐과 함께 아편류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치사량 문제가 비교적 덜한 필로폰과 관련해서도 과다복용으로



▲ 미국 세관에서 적발된 펜타닐이 든 봉투들. 사진=연합뉴스

인한 사망이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2.1명에서 9.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자수는 펜타닐보다 적었지만, 증가율은 357%로 더 높은 셈이다.

이 외에도 최근 몇 년 새 자일라진, 니타젠과 같이 더 강력한 마약이 법의학자들의 우려를 살 정도로 퍼지고 있으나, 다수 검사소에서는 이들 마약 성분을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시오스는 지적했다.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불필요”

미국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5월 11일로 종료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마지막 남은 강제 조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이는 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를 일상적인 풍토병으로 다루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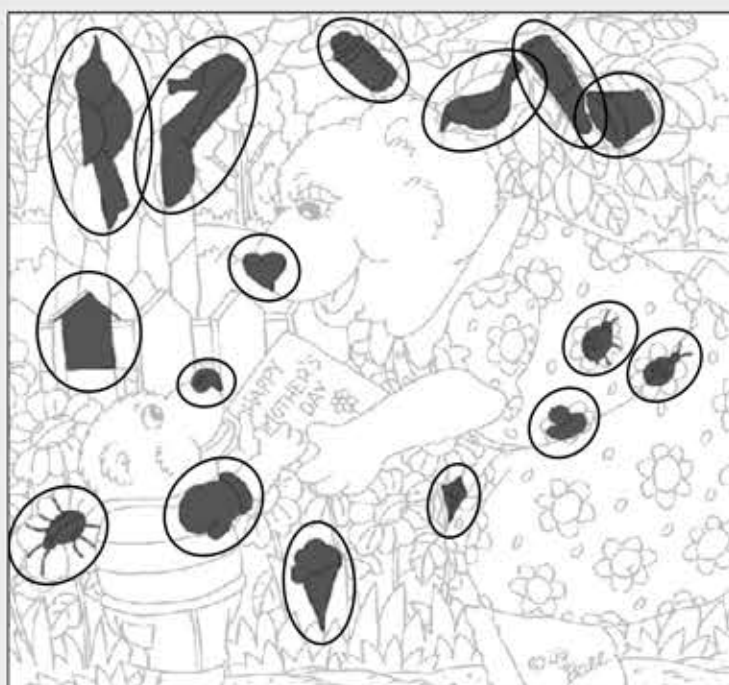
▲ 미국 입국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가 5월 11일로 종료된다. 사진=shutterstock

부로 작년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도 이달 12일부터는 자유롭게 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95%와 9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방	패	2연		3까	막	4눈	
한		5하	루	치		6독	7설
	8전	장		설			빔
	붓			9날	치	10기	
	11대	서	12양			동	
13짐			약		14저	력	
15작	16통		17고	인	돌		18도
	19소	도	구		20적	토	마